

서정3세대동인시 제2집

金良川에 솟는 달



용인시립도서관



EM32254

용인문화원

6
돈김

여

백

8/6

金良川에 솟는 달

용인군립도서관	
장서 제	032254호
19 1993 10. 23 .	구입
김인철	기증

여

백

서정3세대 동인시 제2집

金良川에 솟는 달

여

백

발 간 축 사

우리 용인군은 지금까지 눈부신 발전을 날로 거듭하여 다방면에서 전국의 제일을 차지하는 으뜸군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여기에 지역향토문화 발전을 입증하는 서정3세대 동인시집 “金良川에 솟는 달”이 발간됨은 용인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떨치는데 금상첨화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활이 윤택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문화를 향유하고 싶어지는 욕망이 증대되는 것은 인간의 공통된 심리입니다.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나가야 하는데 그에 앞서 누구나가 문화에 익숙하고, 친숙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높여가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학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용인지역에 이토록 한권의 시집이 발간됨은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무엇보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계기를 바탕으로 우리고장의 많은 분들이 보다높은 관심을 기우려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이 있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온 서정3세대 동인들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며 용인향토문화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92. 12

용인문화원장 박 용 익

여

백

책머리에

아직도 서툰 목소리가
부끄럽기만 합니다.
열정으로 가득찬 가슴
향토문학 싹틔움에 조금이나마
밑거름이 되고자 갈망했던
순수한 바램의 시도였다고
우리의 부끄러움 애써
변명하여 봅니다.

때는
한 해를 마감하는 겨울
저기 나신으로 선
진솔한 나무들 처럼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새 꿈을 간직하렵니다.

지금까지 지켜보아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보내며

1992. 12.

서정3세대 동인들

여

백

金良川에 솟는 달

차례

발간축사

책머리에

임 준 규

안 개 · 17

바람조1 · 19

바람조2 · 20

밤바다 · 21

숲 · 22

이 종 대

김량천1 · 25

김량천2 · 26

김량천3 · 27

김량천4 · 28

김량천5 · 29

용머리에서 · 30

아이들에게8 · 31

아이들에게9 · 32

아이들에게11 · 33

동물원3 · 34

동물원4	• 35
내산리4	• 36
겨울바다	• 37
한계령	• 38
대천(大川)	• 39
계룡산	• 40
생명연습	• 41
상황1992	• 42
봄에 쓴 편지	• 43
서해에서	• 44

옥 빈

피아노 교습3	• 47
겨울노래	• 48
가을들녘1990	• 49
가을들녘1991	• 50
부치지 않은 편지1	• 51
부치지 않은 편지2	• 52
꽃잎을 위하여	• 53
새벽산행	• 54
산골여름	• 55
진달래	• 56
꿈	• 57
뜰에 앉아서	• 58

- 그대에게4 • 59
잡초를 뽑으며 • 60

박 상 돈

- 더 깊이 쌓은 탑(塔) • 63
金良川에 솟는 달 • 65
달맞이 꽃 연가 • 67
고 목1 • 71
고 목2 • 72
고 목3 • 73
편 지 • 74
꿈 • 75
꽃과 여인 • 77
소 망1 • 79
소 망2 • 81
친구에게 • 83
후 회 • 85
의 지 • 87
인 생 • 89
내장산 가을 • 91
가을소묘 • 92
시 선 • 94
가을의 길목 • 96
그리움은 길이 되어 • 98

소녀 • 100

월야소곡 • 101

이별 • 103

박경화

낮들고 낮들고 • 107

고향길 • 108

광고 • 109

잘해보자고 • 110

제기랄 염병할 • 112

그 날에는 • 113

님이여1 • 115

님이여2 • 117

노영미

엽서1 • 121

섬, 어느 기억1 • 122

섬, 어느 기억2 • 123

그리움 • 124

엽서2 • 125

엽서3 • 126

살아있는 날에 • 127

비오는 날 • 128

김종경

아침1 • 131

- 아 침2 • 132
 자유매김1 • 133
 자유매김2 • 135
 자유매김5 • 136
 밤 길 • 138
 습작시대2 • 139
 도둑 고양이 • 140
 세일즈맨의 명상 • 141
 낮에 꿈꾸는 꿈 • 144
 바보가 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 • 145
 풍 경 • 147
 안개와 아침 • 148
 지하도(地下道)를 나오며 • 150
 슬픔은 달맞이 꽃잎에 고인다 • 151
 검정 고무신 • 152
 누이에게 • 155
 새 는 • 157
 가을 진혼곡 • 157
 가을녘 • 159

여

백

임 준 규

안 개
바람조1
바람조2
밤바다
숲

여

백

안 개

날이 저물면서 거리엔 안개가 내리고
조금씩 어두워지는 사람들이
거리 끝에서 안개를 만난다.
취하면 취할수록 안개는多情하다.

모든 문은 안으로 잠겨-나의 문은 어디에고 깊은
절망으로 닫히고 있었네-
바람은 이따금 안개를 이리저리 몰고 다니면서
그대의窓을 흔들고 있다.
-그대여 잠들지 말아요-
내 눈물 담긴 모습을 만나기 위해
안개 속에 눈을 떠라.

사람과 마음은 안개에 갇혀
알 수 없는 거리로 확인하는데
다만 안개 속에 燈불만이 등실 떠있다.
안개는 밤이 깊은 수록 견고한 암호를 쌓아가지만
누구도 그들의 암호를 기억하지 못한다.

안개는 서로의 살을 섞어
안개의江을 우리에게 가슴으로 흐르게 하지만
사람들은 헤어지지 않으려

좀 더 가라앉기 위하여
밤새 편지를 쓰고 사랑을 한다

바람調1

바람은 종일, 어딜까
마른 햇빛을 끌고 다니는데
아직은 아물지 못한 구름
혹은 노을이 거리 끝에서 서성인다.
누가 거리 끝에서 호느낀다.
그의 긴 그림자 홀로 나뭇끼고
누워있는 나무들의 야윈 어깨가 보인다.
어디쯤에선
生涯가 바람에 불려가고
날마다 꽃은 피어나지만
낡은 햇빛 하나가 이미
어둠에 익숙해져 있다.

바람調2

불려간다—너와 나의 生涯에
어제 태어난 바람이 지나가고
내일은 女子 하나가 바다로 나가
살을 섞으리라.
너의 마을에 억겁의 비가 내리고
낡은 베개 밑으로 밀린 잠이 잤아들고
모든 꿈은 깨어난 뒤에 多情하다.
나가자 바람부는 江邊으로
풀들이 일제히 눕고
이직 잠들지 못한 눈부신 얼굴이 있다.
江물의 깊은 흐름은 섬세하며
그 흐름 속에서 너의 자식이 태어나리라

밤 바다

밤새 흘러 동해, 그 깊은
어둠 속으로 이끌렸네
머리 위로 검은 구름장 휘휘 돌고
바람은 파도 끝에서 허영계 부서지며
천지사방 어둠을 흔드는데
集魚燈만 어둠 끝에서 위태로이
부풀어 오른다.

아무도 없네. 출렁이는 어둠속에서
스물거리며 일어서는 모래가 파도와 살을 섞고
자꾸만 어둠만 피워낸다.
내 무엇으로 살았던가
내 남은 기쁨은 무엇인가
밤새 허기진 살 속으로
가슴아픈 幼年의 별이 파고 든다.

바람이 길게 바다에 눕고
바다 속으로 걸어가는 사람을 보았네.
그 이끌림 속에 숨죽이며
떠오르는 낮은 未明.
내 눈물 속에서 축축한 어둠이 떠나가면
섬세히 드러나는 모래와 파도와 구름과 사람
사는 집 따위가 따뜻하게 다가왔네.

숲

숲속에 들면
모가지 잘린 바람
허리 잘린 바람
들이 모여서
뿌리를 적시고 가지를 흔들며
잎새를 피워내며
푸른 함성이 된다.

이 종 대

- 김량천1
- 김량천2
- 김량천3
- 김량천4
- 김량천5
- 용머리에서
- 아이들에게8
- 아이들에게9
- 아이들에게11
- 동물원3
- 동물원4
- 내산리4
- 겨울바다
- 한계령
- 대 천
- 계룡산
- 생명연습
- 상황1992
- 봄에 쓴 편지
- 서해에서

여

백

김량천1

들려주고 싶다.
몸살 앓는 김량천
그 뱃속으로
패랭이 한 묶음
던져주고 싶다.

김량천2

김량천 너른 뚝방에 비가 내린다
후독이는 빗방울 만큼만
겹에 질린 사람들은
깃을 세우고 비를 맞는다.
한때는 이삭 여문 들길을
비를 맞고 거닐었다고
아버진 늘 술취한 음성으로
내게 기억되었고
오늘은
내가 겹에 질려
숨소리 크게 내지 못하고
비를 거리며 걷는다.
김량천 너른 뚝방을

김량천3

담벼락에 오줌을 갈졌다.
눈 짐작조차 어려운
높은 담벼락에
씨팔
낙서를 했다.
두리번거리며 회죽이다가
주먹만한 돌맹이 하나
담안으로 던지고 돌아섰지만
땀 한이 그것으로 풀리라
희뿌연 눈동자엔
벼이삭 누렇게 패고 있는데

김량천4

궁핍속에 인정은 멩들어가도
쉬임없이
노동으로 건강해진 팔뚝 가다듬어
견고하게 높아 진 돌담 밑에
그래도 새 생명 움틔우고
봄 그림자 다가서듯
검붉은 바닥속 깊이
가슴 열 희망 감추고
잔물결 잠재운다.

김량천5

구기자 자주빛 열매가
내 꼬추 같다고 놀리는
형들을 향해 씩씩거리며
물 수제비 한 방 먹이고
돌아 오던 여름 날도
김량천은 매미소리와 어우러져
청량했었다.
이제 세월지나 더럽혀진 뚝방길
더이상 아이들은 물장구 치지 않았고
그래도,
낚시대 드리우는 노인 있고
그 곁에 가끔은
토끼풀 드문 들판 줄기 뻗어
밭길 멈추게 하는구나

용미리에서

꼭 담은 입술로 신음 떨려도
앞 선 사람 발길 되 짊으며
오르는 길
거들어 올라도 힘겹다.
안타까움에 몸부림치는 저 여인의
살붙이는 어떻게 이승을 떠나는 걸까
숨이 가빠올수록 봉분은 높아가고
남아 있는 자들의 슬픔은
통곡으로 몸부림쳤다.
그래도 모질은 일꾼들의 달궁질은
걸쭉한 육담으로 히벌쭉거리며
그칠 줄 모르고
단단히 밟아야 복 받는다고
막걸리 한 사발로 거친 숨 삼킨다.

아이들에게 - 8

더 이상 무엇이든 강요하지 말라고
핏대 세운 너희 눈빛에서
죽어 숨 쉬지 않는 젊음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 9

한 학기를 마감하는 날.
성적표를 나누면서
결코 웃을 수 없었다.
대학만을 고집하는 시간은
성숙을 위한 아픔도
삶의 양식도 아닌
미움과 질책의 무게로 다가서고
늘상 강요로 이어진 생활은
더욱 두려움에 떨게 했다.
성적표 한 장으로 삶이 좌우되는
사회의 증압은 여전히 증폭되고
나는 따스한 손길 한 번 주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도
눈물은 언제나 너희 몫인데

아이들에게11

숨막히는 공간 속으로
내 몰리고 밀려 다니는 너희는
철창 속의 하이에나
한 몸 지탱하기에도 벅찬 날들은
끊임 없이 이어지고
초점 잃은 눈빛은
불안으로 두리번 거린다.
마음껏 뿔 수 있는 초원이 곁에 있어도
꿇주린 자유 채울 수 없는
너희는 하이에나
대학이 무엇이고, 출세가 무엇인지를
고집하기 보다
어떻게 살아 가야 하는가를
말해야 하는데
그것을 말로써 다 할 수 있으랴
눈앞에선 여전히 성공을 위한
보이지 않는 싸움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動物園3

흔들리는 것과
흔들으려는 것과
흔들리지 않으려는 것과
흔들려고 하지 않는 것과는
나는
어떻게 어린 조카에게 말해야 할까

動物園4

미움과 미움은
또 다른 미움으로 불타오르고
더욱 비참해지지 않으려는 몸부림으로
세월만 죽이는지
자기 한몸 지탱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초점 잃은
눈빛들.

속박받는 자만이 알수있다.
그 좁은 공간의 不自由를
오늘도 나는 우리 앞을 서성이며
생존을 위한 음모를 준비하지만
못내 의미없는 발길을
철장 안을 배회만하고 마는
비겁한 패배자.

내산리4

늘 아침은
기다리는 자에게만 열리고
그리움에 지쳐
헛한 마음에 사랑조차 하지 않는다
산은 계곡 깊이 속살을 숨겨
어둠속에서만 흐느끼고
다복술
희뿌연 바람에도
멀리 있어 더욱 슬픈 사람들은
헛되이 팔만 벌려
빈약한 가슴으로 세월을 꼽고
산주의 독기를 빌어
어둠속에 잠긴다.

겨울바다

가까이 가면 언제나 바다는 크고
나는 작게 느껴진다.

혼자 왔다.
또 그렇게 가는 것이 삶인데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않기 위하여
아픔과 함께 자죽을 남긴다.

식구를 두고
어느 누군들 미련을 버릴 수 있는가
떠나기 힘든 영혼들은 파도를 타고
남겨논 자죽을 더듬으며
앗아간 삶을 찾아 헤매지만
미련은 어둠 속으로 흩어지고
식구도 흩어지고
겨울 백사장에 남긴 자죽들도
먼 곳에서 서성거린다.

겨울 바다는 오늘도 미련을 훌터트리고
사람들은 잊혀지지 않으려
하루도 쉬임없이 자죽을 남긴다.

한계령

목은 짐 벗어 던지고
난 듯이 뛰었다, 구름 속에서도
산은 청명하고
창 창
구름 몰아 부치는 소린
가슴 속에서 오히려 서늘하다.
길이 성급해
오르려는 마음보다 발길 더디지만
멈추고 올려다 본 영마루는
아슬하니 산에 걸려 있어
힘겹게 흐르는 땀방울조차
지친 마음 산다듬는
신선함이었다.

大川

허벅지 속살 만큼이나 허연
미소를
지폐 몇 장에 팔아 먹는
그런 여자는 아니라며
구겨진 어깨를
역 후미진 어둠 속에 묻고
이제 도착한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사랑을 찾아
값 싼 흥정으로
밤을 불태운다.

계룡산

허연 속살 곳곳에 내비치고
산은 흐트러져 있었다.
그저 지나는 발길에 채이고
살점 찢기우며
그래도 녀살 좋게 웃고 있었다.
가끔은 가슴저린 바람을 풀어
산자락 기댄 사람들
시름 곁게 했지만
산은 늘 새로움을 간직하고
깊이 모를 그리움을 품어
오늘은 힘들여 오르는 길이라도
새날을 찾는 사람들에게겐
언제나 희망이고
은 밤 몸으로 절규하는
故鄉.

생명 연습

김포가도 변
얼어 죽은 코스모스 뿌리를
뜯 안자락에 묻었다.
정성으로
채 다치지 못한 가을
그리고
눈물.

狀況1992.

오랜 시간 동안 쭈그려 앉아
쌓아 올린 흙더미를
장하게 주물럭 거리며 손끝으로
노동의 신성한 땀을 떨구는 아이들아
슬땀한 어둠에 앉아
장미향 짙은 밤거리를 내려다 보며
진실이 끈적거림으로 절망하고
슬며시 메달라 버리는 세월을
사랑의 소근거림으로
애써 감추려 하지만
소근 거림은 늘 어둠자락 한켠에서 빛나고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하늘 만큼 높은 흙더미를 만들겠다는
어린 눈빛은
이제는 절망뿐인 어느 거리에서건
깨어 있어
삶으로 지친 사람들의 쉼터일진대
늘 주먹으로 가리워진 회썩염속에서
울곳이 걷고 있는지
어린 너희 눈빛을 가슴으로
마주할 수 없구나

봄에 쓴 편지

내 아는 것은 봄이 오면
진달래 피는 것
성근 가슴 도타이 하여
봄 꽃 열게 하는 것
한 울 한 울
형체도 없는 바람을 모아
풀잎 새롭게 하는 것
그리고
어김없이
궁핍한 생명들 살피우는 것

西海에서

오늘도 사람들은 사랑하고
그 사랑 만큼 미움도 깊어
맘 편히 바다를 바라볼 수 없었다.
사랑은 새 생명을 잉태하고
어느새 또 다른 삶으로 다가오듯이
바다는 미움을 삼켜 버리고
늘 새로움으로 행복했는데
늙아 더 이상 새롭기를 포기하는지
자꾸만 물으로 죽음을 흘려내고
추악한 얼굴로 웃고 있다.

옥 빈

피아노교습3

겨울노래

가을들녘 1990

가을들녘 1991

부치지 않은 편지1

부치지 않은 편지2

꽃잎을 위하여

새벽산행

산골여름

진달래

꿈

뚝에 앉아서

그대에게2

그대에게3

그대에게4

잡초를 뽑으며

여

백

피아노 교습3

당신앞에 가끔씩은 검은 건반을 두드리겠습니다.그동안 나는 쉬운 악보로만 걸어 왔지요. 당신은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내 사랑의 음하나 당신께 제대로 들려주지 못했어요. 당신에게 걸어온 길과 걸어가야할 길 사이의 사이음 몇개 길 하나 마다의 원음들 그리고---. 사실 나의 악보는 당신을 향한 음표들로 준비 되었지요. 내 손과 발 그리고 눈으로 당신을 만나 더러는 음표속의 따뜻한 눈물처럼 투명한 소리 몇 소절이나 당신에게 올리겠습니까마는 無音으로 당신의 노래를 기다리기에는 내가 있는 곳에서 당신이 너무 가까운 곳에 계시기 때문이지요.

겨울 노래

내 기억의 바람은 앙상한 가지였네.
팽개쳐도 떨어지지 않던 소리들
견디기 힘들었던 슬픔들은 지상에 내려와
빛이 될 수 있을까. 그래 모든 것은
빛이었다. 가없게도 나는
눈발처럼 흩어져 살았구나

나를 길들여 놓았던 사람들은 나를 길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내 인생의 한 부분을 침식시켰는지도 모르지만
내 사랑을 어디쯤 끌고 왔을까.
지난날 축복했던 삶들이 밤눈을 밝히는 날이면
내게 드리워진 사랑은
추상의 외투를 입고 얼마나 많은
추신을 적으며 떨고 지냈다.

나를 옮겨 놓았던 대부분의 시간들은 겨울이었네.
그 시간의 틈새로 넘나들던 꿈은
희망이 되지 못했지만, 자르기 위해 길러진
화원의 꽃들은 아직도 더 많은
남은 사랑을 위해 준비되었구나.

가을 들녘 1990

쓰러진다. 들녘에 참새떼 날아들고 아버지는 벼를 한 줌 베어 놓으셨다 모든것은 쓰러지기 위해 자라는 것이란다. 멸구들이 마구 흩어졌다.

들녘은 대부분 노인들에게 뽑혀지고 쓰러졌다
그들은 나보다 더 젊었다
산그림자 지고 저문산이 무너진다
지계를 지고가는 노인의 어깨너머로
고독의 세월이 붉게 무너지는 들녘
산다는 것은 슬픔인가 아름다움인가
거친 손마디와 그을린 얼굴
도시 처녀들이 머느리가 되었어도
일년에 몇 번이나 따뜻한 밥 한 상 받을까
벼와 콩을 심지 않고서도
무우와 배추를 가꾸지 않고서도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아들 딸들이다.

누워있다. 참새떼 등지로 날아가고 아버지는 논둑에 앉아 담배를 태셨다. 나는 한 번도 아버지가 늙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다.

가을 들녘.1991

그래도 초라한 내 모습의 희망은 가을같은 것이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길 옆 풀 숲이나 울타리등지에서 피어난 나팔꽃 같은 것들을 좋아했다. 감당하기 힘든 저녁이 오면 길 위에 버려진 길 옆으로 가을은 불안의 꿈을 꾸었다. 인생의 수액을 마시러 왔다가 서둘러 떠난 여인의 숨결 같은 들꽃들은 그래도 기다림의 꿈을 꾸고, 내게 돌아오는 부스럼은 어떤 인생의 수액을 발라야 할까.

부치지 않은 편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시다. 내 사랑의 끝이 역사처럼 꽃이 피고 지고 또 피는 일처럼 더 많은 기억과 시간의 거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이 두려웠습시다. 내게 사랑의 빗장을 열어 주었던 당신의 손이며 눈빛들이 너무도 곱고 투명했기 때문이었지요.

오래도록 당신을 그리워하는 일은 내 기억의 슬픔을 사랑하는 일이었습시다. 언제부터인가 당신의 언덕에 바람이 불고 내 사랑의 뿌리들은 뽑혀지지 않기 위해 더 깊이 뿌리를 내렸습시다.

부치지 않는 편지 2

그대는 흔들리는 꽃이었나 봅니다.
아직도 내 사랑이 들녘에 서성이는 바람일까요.
내가 잠들면 꿈으로 오는 이여

그대로 인해 내가 흔들렸던 것처럼
처음 그대를 흔들어 깨웠을 때부터 그대의 꽃
잎 하나 떨어질까 염려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달빛에 젖는 이여
그대는 흔들리는 꽃이었나 봅니다.
그대 곁을 지날 때마다 바람끝에 묻어나는 눈
물을 보았습니다.
그림자 처럼 그대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꽃잎을 위하여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내 인생은 정리되지 않은 책상위의 시집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큰 호흡을 하고 사는 일이 더해 갈때마다 꽃 보다 꽃잎이 더 아름다운 것은 웬일일까. 추억은 서투른 사랑이야기 아름다운 것은 그뿐, 내가 흔들려야 할 곳에서 축축한 바람이 불고 우리의 꽃들은 몇개의 꽃잎을 더 떨어뜨려야 한다.

새벽 산행

어둠속에 잠든 정적의 신비속에서
나즈막이 들리는 영혼의 노크가
투명한 눈망을 맺힌 샘새벽
바람결에 부딪치는 울림 사이 사이에
사뿐히 내려앉은 산새들의 노래가
물결을 치고
향긋한 산신의 숨소리
태초의 탄생이 있었다.

산골 여름

1

줄줄 흐르는
산골 여울에 .

가재랑 피라미랑
놀고 있다가

쫄르르
내모습 보곤
놀라 도망가지요

2

줄줄줄 흐르는
산골 여울에

빙글빙글 맴도는
나뭇잎 하나

여울에
입맞춤하면
여름은 다 내것이지요.

진달래

빗방울에 서러운 몸짓을 합니다.
질퍽한 신작로 옆에 서서
잠시 눈물 한 방울 훔치면
멀리 모퉁이를 돌아가는
안개꽃 한 무덤
떠나가는 발자욱 마다 물이 고여
강을 만듭니다.

분홍잎 꽃잎마다 선연한 눈물꽃
비내리는 야산에
바람이 불지 않아
더욱 서러운지도 모릅니다.

꿈

그대를 사랑하고 부터
그리운 꿈 하나 가졌습니다.

똑에 앉아서

낮은 바람이 불고
푸른 잎새들의 작은 속삭임이 있네.
서툴게 삶의 언저리를 피하고 싶어
그러나 기우뚱 쓰러질 수는 없네
슬픔의 계단을 오르다 보면
무기력한 하루는 정말 불안해.
가까운 기억, 회한의 무더기를 데리고
밤 기차를 타야겠어. 그러면
나 그 기억을 지나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는 곳으로 갈수 있을까
이 분단된 봄의 슬픔을 위하여
오늘도 무리지어 흐르는
저 개울물 소리를 들어야 하네.
들풀들이 낮은 바람에 젖고 있는 저녁
지는 해를 바라보며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그대에게. 4

그대에 대한 내 언어들
종이에 꼬옥 싸면
노을 빛깔 같은 사랑의 편지가 될까.
푸른색 잉크로 내 슬픔과 고독의 모양과 빛깔을
그리면 그대의 훈훈한 입김으로 피어나는
그리움의 평화.

세상 한 가운데 서 있는 그대가 잔잔히 선한
웃음으로 다가오는 어스름의 저녁 모퉁이에서
쓸쓸히 남몰래 지나가는 추억.

밤이 되어도 나의 사랑은 어두워 지지 않겠습니
다.

잡초를 뽑으며

해마다 어머니는 도라지 밭에 잡초만 뽑고 계셨어요.

그래도 땡벌에 잡초는 자랐지만 어머니는 자꾸만

무우말랭이 처럼 쪼그라 들었어요.

도라지 밭에 씨를 뿌리면 왜 도라지만 자라지 않는 것일까.

들풀이 잡초가 될때마다 하루 내내 어머니는 도라지 밭에

심어져 우리들의 눈물을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박 상 돈

더 깊이 쌓은 탑(塔)
金良川에 솟는 달
달맞이꽃 연가
고 목1
고 목2
고 목3
편 지
꿈
꽃 과 여인
소 망1
소 망2
친구에게
후 회
의 지
인 생
내장산 가을
가을소묘
시 선
가을의 길목
그리움은 길이되어
소 녀
월야소곡
이 별

여

백

더 깊이 쌓은 탑(塔)

사랑이여!
당신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눈빛을 주셨나이다.
바람이 지나고
설레임이 흐르던 여울가 그곳에서
밤 하늘의 슬한 별중에
마주보고 미소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별을 알게
된 기쁨
그것은 분명 희열이었습니다.

사랑이여!
우리는 당신에게서 고뇌도 받았습니다.
여리디 여린 마음에
깊은 멍울이 새겨지고
그 상처는 꿈과 생활을 앗아갔습니다.
빛을 잃어버린 그림자
그것은 죽음을 가늠하는 고통이었나이다.

그러나 사랑이여!
미움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끝내 슬기의 은총이 내렸습니다.
시련은 다시금 소중함의 확인이었고
따스함을 갈망하는 착한 의지가

연화(蓮花)처럼 괴로움속에 짝 텃습니다.
정녕 진실했던 가슴과 가슴
너무나 깊었기에 이별을 뛰어넘는 용기였습니
다.

오오 사랑이여!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않나이다.
아쉬웁던 밤들이며
눈물로 아롱진 발자욱 마저도
하나같이 신뢰의 탑을 고인들이 된 탓입니다.
어느 누구도 허물지 못할 견고한 탑(塔)
그 믿음을 기억하는 뿌리가 마음깊이 자리한
까닭입니다.

金良川에 솟는 달

지금도

넋독에 앉아 東山 마주하면
金良川 물위로 달이 솟는다.

아스라히 먼 記憶 저편
이슬맺힌 풀위로 반딧불 날아
키 큰 미류나무 그림자 아래
수줍은 부끄럼 벗어 버리고
맑은 물 줄기에 裸身 안기면
고달픈 日常마저 흘렀더랬다.

숨 방망이 밝혀들고 여름 밤 꿈을 쫓던
고향의 아름다움 사라져 없는데
우리 念願 모이고 모여
어두운 옥망위에 달로 뜬다면
전설처럼 흘러간 金良川변의
그 時節 追憶이 되 을 수 있을까?

보리방아 울림속에
깊어가던 밤이며
순박한 農心の 善男善女들
변하는 歲流따라 모습 없는데

가슴에 남은 꿈의 그림자
年輪 더 할 수록 못내 그리워

지금도
넷독에 앉아 東山 마주하면
말 없이 흐르는 金良川 위로
아스라한 追憶속
달이 솟는다.

달맞이 꽃 연가

언제나
그리움 깊은 건
떠나는 자보다
남겨지는 자
오늘도 별빛 내리는 언덕에
홀로 꿈을 키워 갑니다.

밤이 깊어 감에
더욱 탐스러히 피어나는 그리움
술한 나날이 흘렀건만
아직도 수줍은 얼굴위로
맑은 이슬이 솟아 납니다.
만나고 헤어짐은
생각할 수록
참으로 기이한 숙명

돌이켜 보니
눈빛 때문이었어요.
여느때 처럼
그냥 지나치지 못한 채
가슴에 문득
사모의 씨를 떨구어 버린

단 한번의 시선
그 눈빛속에
바람이 다시 불고
물이 흐르며
새로운 의미가 자라났지요
꼭 같은 세상이면서
그토록 신비한 다른 세상이
그저 놀라웠습니다.
사랑은 먼저
마음의 빛깔을 바꾸어 버려요

그러나
우리의 거리는
멀기만 합니다.
내 맑은 물가에
당신의 환한 미소가 어리어
환희에 떠는 것도 몇 날
품에 안기려면 어느새 당신은
아득히 허공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깊디 깊은 사랑은
안타까운 뿐인지.

내가 꿈에 젖어 노래하고 있음은
당신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사모와
기다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리디 아린 모정(慕情)

갈증속에 피고 접히지만
나의 삶
결코 슬픔이 아니어요
언제까지나 나는 기다리고
당신의 모습 늘
이 가슴에 머물러 있으니

날마다 지위도
시들지 않는 기다림
그래서 나는
행복 합니다.
기다림이 있다는 건
걸어야 할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세월의 길목에서
묵마르게 고대하는 당신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 맺어질
소망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말씀 이지요
오랜 갈망 헛되어도 후회않고
지순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 한여름 다하도록
내꿈이 덧없어도
그것은 오직
염원과 기도가 부족했던 탓
어떤 고뇌와 시련까지도

보람의 열매로 영글리며
참고 참았던 만큼
더 벅찬 사랑
기다리렵니다.
만남의 세월
환희의 순간을

언제나 그리움이 짙은 건
떠나는 자 보다
남겨지는 자
무심한 어둠이 당신을 앗아가도
이 가슴 겨웁도록
내 목소리로
나만의 노래를 부르렵니다.
밤마다 당신의 빛깔로 피어나는
기다리는 이의
미소 같은 노래를……

古木 1

아직은
이야기하지 말게나
기쁨 덮인 눈길 앞.
다가선 사랑의 환영에
모두 걸었노라고

행여 두 영혼의 만남.
장미빛 꿈길을 열어
두손 마주잡고 섰다 해도
아직은 사랑이라
하지 말게나.

그대의 짐작보다
고개는 가파르고
건너야 할 강 또한 깊나니
굳었던 서약 슬하계
인고의 눈물 속에 퇴색도 하느니

지순한 가슴
번민의 칼날에 갈갈이 찢기우고
이해와 용서로 그을기 까지
참으로 사랑한다 아직은
자신하지 말게나.

古木 2

육망으로 불안았던 肉身
흐르는 섭리에 내어 주고
더 이상 남겨진 歲月
허물지 않기로 하였다.

이제 눈을 감지 않아도
선명히 느껴지는 미소
예닐곱 시절의
무심했던 햇살이여

근본을 잃은 채
손가락 끝에 걸린 연(鵞)
그 하나의 만남으로도
가슴은 넉넉하다.

古木 3

꿈 덜 깬
마른 가슴 사이
하늘 높고
바람은 넓다.
취한 四月
손짓 유혹하는데
물오른 종아리
드러내 놓고
갓난아이 손길 같은
혀 날름이며
싱싱한 가지들
봄 따라 흐른다.

편 지

내게

꽃 향기 바람에
흩어지는 날이 오면
그 날의 하늘이며 태양을
모두 그대에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내게 무지개빛 꿈과
그리움이 움트면
수줍은 설레임
접고 또 접어
살며시 그대에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보내도 항상 다시 남겨져
가득 샘 솟는 아쉬움이여

행여 내 세월에
추억의 꽃 그윽히 피어 난다면
먼 후일 징검다리
아롱이는 미소를 헤쳐
그대와 함께
손 잡고 건너리다.

꿈

나

삶을 여의면
바람이 되리라
어떠한 시선에도 보이지 않고
어떠한 손길에도 만져지지 않는
무의 존재

가난한 이 가슴 한 구석
백합의 꽃잎 덮고 꿈꾸다가
고독이 깊은 바다 명든 가슴에
가득히 향기 뿌려
하-얀 웃음 웃게도 하고
의지 높은 산 봉우리 시름겨우면
어어이 어어이 깊은 메아리
홀로 목 놓아 노래하게 하리라

자신의 실체야
있는 듯 없는 듯

정녕 넓은 사랑은
거부함이 없나니
오는 그대로 감싸안아

어우러질 뿐
진실로 높은 사랑은
탓함이 없나니
홀로 삭이는 가슴
파랗게 멍울져도
참으로 맑은 사랑은
빛깔이 없나니
안는 이에 물들어
하나되기에

나 삶을 여의면
바람이 되리라
떠난 듯
머무는 듯
형체도 빛깔도 없는
바람이 되리라.

꽃 과 여인(女人)

잔잔한
여인의 눈길이
저마다의 모양
저마다의 빛깔
그 나뭇잎의 노래로 피어
마음 던지는 얼굴들을
어루만진다.

가만히 느껴져오는
분부신 태양
바람의 속삭임
또 다시
창조된 꽃으로 성숙하길 기다려
침묵하는 미소에
어느덧 여심은
천지라도 담길
백자수병(白磁水瓶)

섬세한 손길에
이별의 고통은 가워질 되고
사랑도 미움도 함께 어우러져
통일을 가늠하는 視線

하얀 공간을
영원히 머물게 하고픈 念願으로 타올라
비상하는 새 인양
희열로 승화하는
균형과 조화

마침내
정지된 꽃잎 사이사이
女人의 숨결마저
자취도 없이 사라져
어떤 오뇌에도 때문지 않을
그윽하고 은은한
향기로 감돈다.

소 망 1

여울 흐르듯 세월을 가다
닿는 곳 몰라 맴돌아 지나
어디에건 행하니 열린 문인걸
다만 망설이고 돌아서지는
이리도 믿기지 못할
우리 마음일 뿐

하얀 꿈 밭에 꽃 가꾸고
어찌다 뜨인 의식
명을을 가져
견지 못할 연연함에 몸부림치는
야삼경 두견보다
외진 마음아

날아가는 새
애태워 하며
남겨지는 삶 서글퍼 하리
되풀이 되는 건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떠나느니
사람의 무런것을……

만번 곱 살아도

겨웁지 못 하거든
가슴 푸르른 어느 누구의
물 보랏빛 파도같은 회억이 되랴
애끓는 그리움 반짝이는 별이 되랴!

소 망 2

모두가 꿈을 쥐고
꿈속에 사는 것
은빛 날개로
한껏 파아란 하늘을 날아도
정녕 우리를 목 마르게 하는 것은
이름없는 물별로 잊혀짐이 아닌 것을

저무는 세월
꽃은 눅고
이윽고 나부껴 흩어질 한잎 낙엽
바람처럼 생겨나
마침내 스러질 노을이 되는 것일 그 뿐

스쳐간 사람
지나온 날 들
무수한 만남을 누가 다 간직하리
그토록 덧 없이 가고프지 않음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련만

너와 나
나무가 되고 별이 되고
우리 서로 마주보는

고독과 그리움이 되어서
이루지 못할 사랑마저
아름다운 꿈으로 고이 간직한 채

눈부신 세상
온통 품에 안겨도
정녕 우리를 아쉽게 하는 건
이 름없는 물별로 잊혀짐이 아닌것을

친구에게

외롭니?
그래도
웃음을 잃지 말으렴
넌 알고 있잖아
삶이 결코
영원도
허무도 아니라는 걸

슬플땐
천리를 생각하렴
어떠한 희열도
순간인거야
사랑하는 사람들
세월마저
다 떠나라지
결국
가슴 속 그 안인것을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멀리 눈을 뜨렴
몸이야 진흙속에 묻어두고
순한 뉘일랑 하늘이 되거라
구름에도
아니 가리워질
파아란 하늘이 되거라.

후 회

어느날 길가에서
상처입은 꽃 한송이 만났습니다.
꽃에게는 비바람이 내렸으나
내 길은 맑아서
무심코 그 곁을 지나쳤습니다.
한번의 시선으로 비 걸히고
더 맑은 향기를 나눌수도 있었으련만

어느날 풀 쏘에
철 잃은 새 한마리 떨고 있었습니다.
새는 추위로 날지 못했으나
나의 날개는 힘이 넘쳐
분주히 그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번의 포옹으로 추위는 사라지고
더 높이 비상할 수도 있었으련만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날 나는 길가에서
비 바람에 젖는 꽃이 되었습니다.
그 곁을 무심어린 시선들이 지나쳐 갔습니다.
아 - 아 그것은 너무나도 흡사한
지난날의 내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의 눈빛으로 비 개이고
더 맑은 향기가 넘칠수도 있었던

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날 풀 쏘에
추위에 떠는 새로 앉았습니다.
그 위를 분주한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 아 그것은 틀림없는
지난날의 내 모습이었습니다.
한번의 포옹으로 추위는 사라지고
더 높이 비상할 수도 있었던

적막한 어두움속에 외로움을 덮고 누우면
잃어버린 내 마음이 안타까움의 비로 내립니다
길이 있다하여
그냥 내달림이 모두는 아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힘찬 날개도
돌아갈 길도 사라져 갑니다.
남겨진 날은 적고
지나온 길은 희미하게
기억속으로만 남아있기에.

의 지

어린시절

우리가 가지고 놀던 활과 화살
그 시위를 당기면 당길수록
화살은 더 높이 더 멀리 날았었지
그대
스스로 활과 화살이 되게
지금의 세월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시위를 당기는 순간 순간이어야 하네
뜻을 가지고
의지의 씨앗을 뿌리게나
흙이 만물의 대지요 터전이라면
사회는 인간의 땅
흙은 항상 거짓이 없지
믿고 일구는 자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듯
우리의 땅도 꼭 그럴걸세
풀이 자라는 한해동안
어찌 맑은 날만 지속될 수 있겠는가?
비바람에 꺾이지 않는 풀에게만
가을의 메마름 속에
새 생명이 간직되어지는 것 처럼
우리의 일생
우리의 삶도 또한 그럴걸세

더 큰 보람을 위해
오늘의 고통은 이겨야 하리
참고 가꾸어야 하리.

인 생

우리는 가야 한다
눈부신 햇살 피부에 느껴지고
싱그런 바람이 호흡으로 감지될 때
힘차게 일어서
떠나야 한다

소망이 없는 삶은
죽어진 생(生)
미래의 산 봉우리엔
오색 찬란한
무지곶 띄워야 한다

가시덤불 헤치고
가파른 벼랑길 겨우 오르며
더러 외로운 방황에 피로하고
더러는 몸부림 처지도록 비오는 밤을
기약없는 기다림에 울어야 한다

그러나
피땀속에 피어나는
탐스런 꽃 송일 가꾸고 맡아
행복아닌 순간의 회열과
미움에 뒤섞인 사랑으로 목메야 한다

세월이야 자꾸만 지나가는 것
진리도 빛 바래고
영원도 마침내 소멸하는 것
그래도 어딘가에 머무를
한 줄기 새 밝음을 보아야 한다

육신에 아직 따듯한 피돌고
싸늘한 죽음이
한줌 흙으로 되돌려 놓기전에
힘차게 가야 한다
우리들은……

내장산 가을

떠나온 곳 없는
내 여기 섰으니
애증은 청풍에 떨치고
한 마리 새인양

낙조에 빛바랜 세월의 정열이
오히려 숙연한 신비를 수 놓았나
서래봉 구비 구비
가을 이은 저 하늘아

얻은것 없이 찾았으니
찾지 않고 오늘 얻은
오호라 말로 못할
장쾌한 이 허무여!

가을 素描

빈 마음 물이 흘러
맑은 가슴 속
먼 산 그늘
갈색 水草 어리고
저만이 푸르른 하늘
마저 잠기다
저기
저 水深 속으로
서둘러
길 떠나는 새
無心한 季節이여
그대 또한
소매 끝 잡아도
머물지 않으려니
그저
지나가는 모든 것
더불어 떠나면
그 뿐인 日常들을
선뜻 돌아서지 못할 안타까움
무슨 갈망이 남았길래
두 눈
내려감은

꺾가에 들리느니
가을 새
가을 바람
새 소리
바람 소리
덧없는
歲月 소리

視 線

우리계절.
따스 날. 추운 날.
들고 도느니
나의 길에 이윽고 어둠이 내려
날지 못하는 절망
눈물로 젖어드는 밤이 오면
마지막 한 줄 기쁨으로
네 순백 유혹을 건져 올리리라
설레임 가득하던
눈 웃음.

회억의 꽃 송이 그 향기이면
젓빛 산 너머 태양이 솟고
구토스런 발 자취쯤
행귀낼 수 있으려니
하얗게 표백된 가슴에
더욱 싱그런 꿈을 가꾸리.

우리 모두 기대 어린
누군가의 한 줄기 그 소망으로
고된 생을 끝내
저버리지 않고

더 큰 보람을 키우기 위해
마침 내 굳건히 일어서는 것.

죽음의 강안 그 건너까지
서로가 서로를 지켜 보아 줄
늘 푸른 기도를 간직하고 있다면
어두운 꿈 길에도 무지개가 뜨려니
거칠수록 진실한
미소를 심어야지
행복한 자 불행한 사람에게
불행한 사람
더욱 슬픈 이에게.

가을의 길목

초추의 그림자 드리우면
홀로 그 강가에 서리
이제는 서글픔도 없이
가득히 밀려드는 바람을 안고

격일 줄 모르던 열정
눈 먼 사랑도
돌아보면 그리움의
아련한 자취일 뿐

거머쥔 손에 잡히느니
매양
허망한 세월의
비인 그림자

덧없이 깊어가는
삶의 연륜위로
또 한자락의 계절이
잡겨 오는데

새 꿈 순뜰을 봄 재우며
남겨진 애욕 그만 접어두고

푸르른 고독 짙어지는 강가에서
미혹을 풀고 풀어 흘려보내리

그리움은 길이되어

순일(純一)한 하나의 운명과
또 하나의 운명이
뜨거운 가슴만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어엿한 삶의 논리를 알았을 때
슬픔은 친숙한 벗이 되어
내게 머물러 있었다.

꿈이 사라져버린 방황앞에
가장 절실한 목적을 잃고서도
끝내 바꾸어 가지 못할
일상의 길이 존재함을 깨달았을 때
체념은 못(釘)이 되어
고독 깊숙히 자리하고 있었다.

찢기고 기워지고 덧없는 인생
외로움조차 몸에 배어
느끼지 못할 관습이 되어 버렸을 때
아직도 잊지못해 고개드는 추억이
사라져 버린 아픈너머 새로이
만남의 길을 열어주고 있었다.

지치고 때묻은 삶

나이들어 버린 열정속에서
지나간 날들과 사랑에 대하여
살며시 펼쳐지는
살뜰한
그리움

소녀

찬찬히 밀려가는 아침안개
아 - 아 아직
얼굴 가득 이슬을 머금고
햇살아래 수줍은
한떨기 꽃이에요

미지의 꿈이야
모두가 나의 것
설레이는 기다림에
살며시 고개들어
누구인가 알세라 발돋움 하죠

넘겨보지 말아요
싱싱한 그리움이 눈물로 아롱져
덧 없는 세월의 물살
술한 나날속에 풀잎 띄우던
아름다운 핑크 빛 추억의 페이지들

오색 눈부신 고운 무지개
팬시리 가슴 두근거리
새처럼 하늘높이 날아보지만
그래도 아직은 한떨기
수줍은 꽃이에요.

월 야 소 곡

그리움도 많고
시름도 많고
번거로운 세상
고뇌일랑 동진 채
고적한 밤을 안고
선을속에 내가 운다

달빛을 마시고
바람에 취하면
원망도 피어나리
사랑도 피어나리
어드메로 흐르느뇨
무심한 구름이여

끝없이 울려나는
마음에 실어
슬픔아 스러져라
기쁨도 스러져라
넘치는 음(音) 가득할 사
이 정을 어이하리

시름도 많고

그리움도 많고
덧 없는 길을
세속 넘어 나는 한 마리 새되어
구름 곁 감돌아
가락속에 노니인다.

이 별

세상은 등글어 자꾸만 돌아가고
때 잃은 낙엽 가지를 등 지듯
이제 우리도 떠나야 한다.
때묻은 관습
고뇌로운 일상에서

어떠한 영원도
순간의 만남속에 이루어 지는 것
그리고 우리는 헤어지는 것이다
안타까움 서린 어느 강 안
그 곳을 지나던 이름모를 흰 새처럼

감미로운 웃음
정겨운 밤
애타는 갈망으로 설레이던 거리에서
그토록 미어지던 걱정을 안고
그토록 허전하던 추억을 되새긴 채

아집을 날려버린
힘찬 손짓으로
매어달린 모두에게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또 하나의 만남을 위하여

그늘진 얼굴을 때만져야 한다.

만남이 의미 깊듯
헤어짐 또한 소중한 것
술한 고뇌의 나날, 명울의 진통없이
어디 꽃한송이 피어날 수 있으랴

우리 비록 슬플지라도
다시 이어 흐르리라
모두의 것이기에 오히려 무심한
저 세월 그리고 남겨진 삶

그래 우리는 저마다의 길로
말없이 돌아서야 하는 것이다
아프게 저미는 가슴
착한 인내의 손길로 쓸어내리며

때 잃은 낙엽 가지를 등지듯
이제 우리도 떠나야 한다
파도같이 밀리는 그리움
오 - 오 깊디 깊은 사랑에서마저도

박 경 화

낮들고 낮들고
고향길
광 고
잘해보라고
제기탈 염병할
그날에는
님이여1
님이여2

여

백

낮 들고 낮 들고

시퍼런 낮을 들고
낮 들고 살아가자
지금까지의 침묵에서
깨어나
할 말
할 행동
낮질하며 살아가자

씩 노란 늪은
가차없이 배어내고
새 날이 반겨 줄
푸른 늪으로
알뜰하게 키워내어
실한 열매 열리거든

안으로 밖으로
살찌우는
모두의 양식(良識)이 되도록
낮질하며 살아가자
우리
땀땀한 낮을 들고
해를 보며 살아가자.

고향길

산 언덕 배기 목메고
피 토하는 하늘 이고
한가위 고향달 품으로
도망하는 노동.
발목 잡힌 가도 위에
운전사의 입장단이
어혈씨구 종을씨구.

광 고

여러분을 환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가지고 계시는 부담은 완전하게 똑
파전, 도토리묵, 감자 튀김에 콜뱅이까지
퍼 넣을 안주 걱정일랑 똑
모셔오고 모셔다 드립니다
빨간 딱지 달고 저승구경 받으시도록
각별하게 신경 썼습니다.

현란한 공간에서
원초적인 육체에 뱀같은 옷 칠을 한
여인들의 몸부림이 스트립 쇼라며 너울 거립니다
바보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 주는 바보 한사람 등장 합니다
건강하던 심장의 박동과
두개골 속으로 흐르는 번쩍이던 지혜가
어떤 모양으로 해체 될지는 모릅니다
밤을 이렇게 쓰러뜨리고
으아 하 하 아—
낮은 책임 없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바로 문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해 보자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해 봅시다’

노동현장에서 관리자들의 머슴
노동자들의 마음들이 공정개선을 해보자고
좋은 작업장을 만들어 보겠다고
목청 높여 외칩니다.

기계의 호통 소리와

탐욕자들의 억압 소리가

연이은 노동의 착취를 위해 오우 에스(5S) 활
동을 합니다.

지금도 모였습니다

공장도 노동자도 잘 살려 보겠다고

마음들이 모였습니다

테크노피아 건설을 눈에 매달고

환영속에서 말입니다.

경제가 흔들거린다. 도산기업이 늘고 있다.

우리 회사도 어려운 실정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고

그러나 더 나은 회사를 위해

우리는 서방 정토로 이사를 할 겁니다

2~3년 후의 청사진은 제시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뼈마디 하나하나
핏방울 방울마다 쏟아 부어
귀 먹고 눈 멀고 병어리 되도록
노동의 가치(?)만을 살리면 됩니다
그래야 어려운 경제에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야 너와 내가 잘 살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관리자의 머슴이
노동자들의 마름이
모였습니다. 잘 해 보자고.

제기랄 염병할

쇠주잔 막걸리잔 기울이며
세상사 더럽고 서러운 일
마셔 버리자
얼간하게 오고가는 첫가락 장단
일그러진 입가에 흐르는 애환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이 아니 좋을까...”
고꾸라져 피로운 이내 속을
달을 모르기에
그 빛이 차고
귀뚜라미 동심(同心)으로
울어예는 깊은 밤.
고뇌에 익숙해진 철갑인형
아니 꼭두각시

욕이라도 제기랄 염병할

그 날에는

-김인서씨를 생각하며-

조각난 채석장의 돌덩이 모양
흩어진 이 산하, 평등의 혈맥
1백여 통의 엽서 가득
어미의 혼이 서렸지마는
저승행 우편은 보낼 줄이 없으므로
분단의 현장에 다리를 놓아
내 혈육이 한 몸으로 만날 날
그 날
그 다리가 되기 위해
산천이 깎여져 돌덩이 되거든
번쩍 들어 올려
옥살이 동안 말 못한
이 세상이 말 문 막은
비록
선 목소리나, 자유와 통일의 합성을 외치리라
그 때에 말하리라
기회와 권력을 등에 업고
변절하는 시대의 위대한 자(?)있었으되
나
끝까지 오늘에의 신념으로 살았으나,
큰 힘 되지 못하고
나

혼자만을 지키는 데 혼신을 다한 것을
부끄러워 할 것으로
역사의 눈뜬자에 지남차 되리라
그 날에는.

님이여1

—아버님 전 상서—

녹음이라 푸른 산을 올라 보니
찬 바람 세게 몰아치던 겨울,
한 해를 끌고 가버린 虛虛한 봄의 무상감을
억새풀 가득 모여 더욱 부추기네
망추풀 길게 목을 뽑아
하얀 얼굴 힘겹게 웃어 보이지만
해를 잃은 나만 하겠느냐

世人の 마음 같은 동토의 땅에
허연 서리가 덮이고
님이 오색칠을 한 꽃가마를 타실적에
무슨 겨울 하늘이 그리도 파랗더이까
누런 배옷을 입히고
가는 길에 잠들 곳
허망한 세상에 쉬어 갈 곳을 등글등글
지어 주면서도
어찌 할 수 없이 멍든 가슴은
피빛 울음으로도 모자라더이다
님을 못잊어 함을
진달래 꽃잎에 붉게 새기고
포송포송한 잔디로 단장을 합니다
님이 어느 흙에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시는 곳
그 황톳길
혼자 밖에는 갈 수 없다고 타이르던 길
그 길을 가시오며
이제사 고향을 찾으신다던 님을
그래도 못한 미련으로 부여잡습니다
님이 가오시면
봄이 오지 않으리라 했습니다
풍요로운 여름과
여름 열리는 가을도 맞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님이 가시던 그 서릿발 같은 계절을 기다리며
이 풍요를 부끄러워 합니다
오롯한 님의 길을 좇아
대나무 무성하게 키우지 못하는 나를
서야 할 곳
가야 할 길에서
낮 들고 살아 갈 수 있도록,
돌아보지 않고 홀로 가시던
그 길을
부끄러움 없이 갈 수 있도록
님이여, 비수를 꺾으옵소서.

님이여2

-아버님 전 상서-

님의 墓 앞에서
비수를 쫓던 맹세
역사를 속으로 가져가
살갓을 벗기는
선홍빛 사랑을 할 것이외다.

님을 좇아
서리를 부르는
혹독한 질책과 반성의 칼날 위로 선선히 가
봄날
은 산하를 안은 진달래
붉은 지조처럼
주인이 되리다

그러한 날에는
님이 추시던 鶴춤도 추고
깃털 수백 송이
가슴의 흰 뜨거움으로 노래 부르리다
님이여.
그 날이 오면
生과 死의 긴 끈이
부끄럽지 않을 것이외다.

여

백

노 영 미

엽 서1

섬, 어느기억1

섬, 어느기억2

그리움

엽 서2

엽 서3

살아있는 날에

비오는 날

여

백

엽 서

아카시아 꽃향기
나기 전
그대에게 가겠습니다

초록 물감 고운 초,
모차르트의
하프와 플룻
함께 가겠습니다.

몸 아프고
마음 아픈
시름 잊어두고
맑은 차 한잔
나누어 주시겠지요.

섬, 어느 기억 1

새벽3시,

무성한 빗소리,

오지 않는 잠,

..... 어두운 신기루.

섬, 어느 기억 2

누가
지금 돌아왔는지
먼 곳에서
돌아나는 불빛
들,

지나간 날들
이야기 하는 네 등 뒤로
물 속 그림자
길게
귀 기울인
나무 한 그루,

잠시 날아가는 새.

그 리 움

겨울 저녁
어두운 노을 무렵
까치를 안은 나무의 고요
문득
손을 씻다가 떠올리는
이름
이마 환한 물이 되어
그래,
서툴기만 하고 거친
내 詩를 그리워 해준
그대
따뜻한 아름다움이
겨울 저녁
어두운 노을
물이 되어
나를 적시고 있다.

엽 서 2

한 줄의 글
쓰지 않고서
지내온 계절

하늘 품은 가을
높게
높게
바라보는 이 아침에,

꽃삼아
부치는,

9월이 오면
그대여.....

엽 서 3

그렇게 살고 싶어 어디다 방을 얻고
책이 있고 노란 초와
공부를 할거야 음악을 시를 꽃
을
가끔 바다에 가고 싶어
그렇게 살고 싶어

살아 있는 날에

비 개인
오월 아침 하늘
참 보기 좋아요.

보이는 얼굴마다
손 흔들어
웃고 싶어요.

장다리 꽃밭에 바람,
일하는 사람들,
날아가는 새들소리,
가득한 햇빛,

맑은 마음으로
좋은 노래
부르고 싶어요.

비 오는 날

비오는 날엔
힘들고
외롭다
외롭고
힘들어
우산 하나 들고서
나무 많은 강가에
한참 있고 싶다
파도밀리는
바다의 막막함보다는,
강물에 젖는
비 오는 오후,
그 하염없음이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김 종 경

아 침1

아 침2

자유매김1

자유매김2

자유매김5

밤 길

습작시대2

도둑고양이

세일즈맨의 명상

낮에 꾸는 꿈

바보가 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

풍 경

안개와 아침

지하도를 나오며

슬픔은 달맞이 꽃잎에 고인다

검정고무신

누이에게

새 는

가을 진혼곡

가을녘

여

백

아 침 1

안개를 갈아엎는
울아버지 소몰이를 바라보다
허기에 질식한
이슬맺힌 풀잎에 채여
논두렁에 주저 앉는다

밤새
내장에 가득 고인
씩어 땀새나는 나의 이력(履歷)을
토해내며
생존의 쾌감으로 일어선다
풀잎처럼 일어나
안개를 물고가는
울아버지 따라간다.

아침2

밝은 여인숙의
늦잠처럼 쏟아지는
햇살을 휘저으며
그리움이 남은
사람을 부르건만
목메이는 것은
초록을 걸쳐입은
햇살 아래
화장기 없는
늙은 창녀의 얼굴이다

골목길 마다
사랑으로 부어오른
눈부신 아침이여
뱀처럼 허물벗은
하얀 반달이
햇살에 걸려 울고 있다
그리움이 흘러내리는
푸른 하늘에 얼굴을 묻고

자유매김1

고향 산천 허리 굽혀 돌아온 날
뚝방머리 황톳길에 스물 스물 기어오르는
안개 속을 지나
추억의 옷깃을 흠뻑 적셔가는
늙은 시인이 있었다
모정의 눈빛을 가장 먼저 찢는 것은
콘크리트 바닥으로 단장된
김량천(金良川) 가변의 너른 주차장이었다
망쫂대와 돼지풀이 뒤엉킨 사이 사이로 흘러가던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 간 곳 없고,
김량천의 주인이 되어
버젓이 배 깔고 누워 있는 형형색색
화려한 승용차에 큰주먹 휘두르며
돌과 흙을 퍼나르던 포크레인과 화물차까지
성역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똥싸는 놈들처럼 드나들던 유년의 땅
그곳은 우주였고 자유의 세계였다
아이들이 어른되어 들어가는 곳
어른들이 아이되어 들어가는 곳
세월에 실종된 아이들을 찾고 있는
사고 현장 보호구역
문명을 포식한 기형의 생명조차 사라져간

검은 젓이 흐르는 어미의 가슴에
낙시대 내던지던 이름모를 강태공의
변사체는 어디에 매장되고
빨래하던 아낙들은 어느 바람에 실려가고
부끄러움 벗어던진 몸뚱아리 적셔가는
아이들은 어느 놈에게 유괴되었나?
그대들은 알고있나
추억을 펴마시고 악취에 중독되어 실려가는
그 옛날 김량천에 태어난 시인을.

자유매김2

도심 사거리가 일방 통행처럼
멈춰서서 소리치고
버스기사 김씨가 육지거리를 한다
지팡이든 노인한테 침이 튀고
무료한 사람들 긴장하고
다시 잠이 들었다 깨어나는
짜증스런 그 자리.
택시 회사 입금액이 정체된다고
운전사 조형의 걸은 입이 천방지축
출근길이 막힌다고
퇴근길이 막힌다고
서울에서 용인 자연농원까지
주차장이 되었다고, 막혔다고.
지랄같은 세상이라고
경적을 울리며
자유가 신호등에 걸리고
기회주의자는 빨간불을 질주하고
끝내 자유가 피흘리며
앰블런스에 실려가는
딱지 끊긴 양심의 호흡이
거칠게 몰아쉰다.

자유매김5

비틀어진 자유의 유골처럼 썩어 있는
쇠창살 너머 당신의 거리
어느 곳이든지 유명 브랜드가
총명한 눈빛으로 감혀 있다
자유는 네온 불빛에 발가벗고
활활 타오르는 집시의 족속들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마이크로 미니스커트에 에텐 동산을
연출하는 빠리의 눈빛에 휘청이는 사람들.
도시는 쇼윈도우에 갇힌 마네킹이 되어
팔려가길 기다리는 애원의 눈빛이다
벗든지 찢든지 마음대로 자위하는
정신대 후예들이 득실거리는 곳. 그렇다
(언제부터 구속은 자유의 카타르시스였다)
자유가 걷고 있음을, 당신이 가고 있음을
바로 여기에서 비명하는 자유를

과거는 회전 의자와 같은 것이라며
이젠 스스로 선택받는 것이다
영광스런 조선의 여인들은 외화를 위해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탄다
아! 징한 세상이어

메이드 인 쪽빨이나
메이드 인 코쟁이가 만든 제국의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발광하는
조선족 정신대의 딸들이여.

밤길

나
더듬이를 부러트려
앗차
비명이 미끄러져 가는 어둠에
빠져 소리친다

사람 살려!

질퍽한 메아리 돌아온다. 미친놈!

습작 時代2.

밤이 가슴을 뚫고 돌아 선다.
싸늘한 시선에 묻어온 고독을
한껏 부들켜 안고
취한 음성에 채여 쓰러지던
빈 소주병도
붉은 체온을 마신다.
희뿌연 시간을 과음하며
백지의 광장에 거꾸러져
가슴을 찢어 구겨보고 또 구겨보고
어느새
떠들던 꿈의 조각들을 맞추며 잠이 든다.
— 취해도 채워지지 않는
가슴을 도려 내려
온갖 칼날 대어봐도
붉은 피에 녹아버리고
그 피를 마시는
낮익은 얼굴이 보인다.

도둑 고양이

사람들의 심장이 널려 있는
도심 속 길 바다에
오징어포마냥 달라붙은 도둑고양이
철저한 생존의 방법을 위해
삶과 죽음의 찌꺼기들을 먹으며
항상 웅크렸던 네놈이
자비로운 모습으로 형상화 될 때
그렇게도 울부짖던 목소리만큼
현란한 눈빛으로
할퀴며 달려들었던 네놈.
오늘은 머리통부터
차 바퀴속으로 끌려가는구나
오늘밤도 너의 생존을 위협하는
천적의 방울들이
세상에 매달려 딸랑이고
갈 곳 없음에
비스듬한 어둠을 피해가는
네놈은 도둑 고양이.

세일즈맨의 명상

1.

젖은 태양이 흘러내리는 낡은 커튼뒤로
빗살무늬의 생명을 엿보던 시계소리 멈춘다.
샌드위치, 에그후라이, 밀크한 잔 들이키는
문명의 환자가 되어 일어난다.
아침 신문의 지린 향에 올망한 글자들이
하루살이처럼 날개를 펴득이며
눈으로 코로 귀로 입으로 달려들어 숨통을 조여
온다
문화면 칼라판 화보에는 미끈한 육체들이
감긴 눈을 간지르며 가슴속 불을 피운다
아! 뜨겁다.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수도승의 기도처럼 덧에 걸린 삶을 마신다
멈춰있는 시계소리처럼 꿈틀거리며
세상으로 나간다.
단지, 생존의 이정표를 따라서

2.

빨간 루즈의 입술자국 부비며 물오른 담배연기에
외설의 이름으로 포장된 세일즈맨의 구걸을
바겐세일로 사들이는 신사 숙녀 여러분.
진도 모피를 입은 다이아몬드박힌 골든링의

우아한 시선—

호미진 미소를 부벼끄며 일어선다. 제기랄!
간사한 여자를 애완용 동물처럼 길들여온
조련사가 되어 사는 나는 세일즈맨.
똥똥한 중년 부인의 지성과 미모는
금박의 철학서를 주문한다. 배불때기 사장님 마누
라
두꺼운 책장마다 기생하는 시간의 비늘을 쓸어내
리며
예리한 메스를 들어 해부라도 —회를 떠서
생식이라도 —불에 구워먹는 영광의 제물도 못되
고
화려한 책꽂이에 쇠사슬을 두른 채
시간의 숨털이 돌고 푸른 잎이 피어나고
꽃이 없는 아픔에 시들어 버린
누런 철학자(싸르트르. 헤겔…)의 이름이 보인다.

3.

여보소! 시간의 대지 위에 사랑을 재배하는
농군이 되고 싶소. 희망을 일궈먹는 사람 딸이오.
어쩌면 어느 신문 귀퉁이에 희망이 연재 되고
있는지도 모르지. 그는 거액에 고료를 받아가며
화려한 희망을 엮고있는 최고의 조련사일것이오.
어디에 숨어 세상을 음해하고 있는지
불현듯 떠오르는 희망의 비상구를 찾기 시작한다.
도시마다 굳게 닫힌 철문들이 묘비처럼 줄을 서
고

어느 묘비명엔 개조심! 우라질 세상이다.
희망의 파수처럼 으르렁거리는
개놈에게 쫓기어 다른 문을 찾는다
개만도 못한 나는 세일즈맨
그런데 마지막 도박판에 운명을 걸듯
긴장된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어느 놈이 희망을 현상 수배하기 시작했다
불온전단처럼 흩뿌려진 거리마다.

범죄자 : 희망

죄 명 : 아름답고 선량한 사람들을 피어
생활을 불안하게 하고 이상한
정신적 모임을 만들어 시대를
역류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
살고 있음(불법체류)

찾는자 : 이 시대를 가장 만족해하므로
행복한 사람들.

나의 희망은 결코 나타나지 않을지도 몰라!
개같은 우리네 인생이 끝날때까지.

낮에 꾸는 꿈

— tangerine dream의 『Phaedra』를 들으며 —

늘상, 백일몽의 환상을 배고 자던
아이가 어느 날 불멸의 여인 페드라(Phaedra)를
능욕하며 쓰린 밤을 불태웠다
별거벗은 선을 위를 출렁이는
女神의 가슴에 묻혀
별장계 달아오른 몸뚱이를 뒤틀며
영원한 시간을 위해 기도한다
바람을 채색하는 슬픔을
감추려 하지도 못한 채
기억의 속살을 도려낸
머리통이 부서지는 순간,
빛으로 쪼개진 꿈의 날개를 접고
아이는 고통의 헛기침에 놀라
깨어났다.
언제 부터인가 아이는 꿈의 꼬리가 잘려가는
그런 꿈을 꾸기 시작했다.

* tangerine dream : 프로그래시부 ㉸ 그룹

* Phaedra :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미모를 갖춘
자존심이 매우 강한 여성으로
The Sues 왕의 Phaedra를 상징

바보가 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

행운목 이파리가
유난히 무겁게 추락하는 아침
우득 우득 귀청을 뜯던
새벽비가 출근을 저지하더니
이제 안개비로 변신, 깡마른
몸둥아리로 기어 오른다.
부러진 부채살을 비집듯 버스를 타고
견인된 차량처럼 웅크리고 앉아
엉성한 몸짓을 푼다.
하루를 으레히 인사하는
라디오에선
워싱턴과 모스크바가 만나고
동독의 축제가 전망되는 것은
전과의 무력함에 걸리고
시간과 화면에 쫓기는
어둔 인간들의 횡포는 아침을 비껴간다.

우리는 최저생계비가 얼마라는데
실향민의 방랑처럼
울타리 하나 못 막고
이 시간과 길들에 수 많은
한숨을 토하고

피로와 절망은 겹겹이 쌓인다.
가로수의 퇴색한 얼굴을 닮아
새벽의 산파로 어기적 거리며 나온
청소부는
거리에 흩어진 죽음을 찾아
피매기 시작했다
표정없는 얼굴은 아무도 부르지도
불리지도 않았다
그렇게들 말없이 스쳐오고
그 보다 빨리 스쳐간다.
(결코 건드리지 않았다. 목매달린 하늘을)
자기들을 부인하며
공복의 허기를 하나 하나
쫓아 먹는다.

풍경

時代의 명분을 팔아가면서도
마네킹보다 화려한 사람은 없으리라
잉여분의 생명을
빛바랜 유행처럼 사고파는
인생 살이에 뒷 걸음쳐
정찰제의 대열에 진열된다.

장터에서는 비싼 것이
싸게 팔린다
풍습에 치장한 뚝배기 같은
목소리가 즐겁듯이
그날은
파리 얹은 생선을
뜯어먹는 그대들의 눈빛까지
흔들어 팔린다
어둠에 잉태한
주름진 해와 달이 빛에
물들기 시작할때
낮은 목소리를 거부하던
길들여진 양심은
더 이상 詩를 쓸수 없다고.
(누구든 나를 욕하지 말라고
세상은 목소리를 높인다)

안개와 아침

늘어진 어머니의 젓줄을 빨듯
새벽 공기에 태운 한 개피 담배를 문다
굶주림을 채우는 첫 노동의 시작으로

안개의 큰 입으로 먹히는 통근 버스에서
목을 터트린 사람들이 밀려 나온다
안개등의 매마른 소리는
밤새 젖어 떨어지고
어둠에 불타버린 자동차의 행렬마저
질식해 쓰러진다
무너진 논두렁을 내려다 보는
안개의 성전엔 붉은 깃발이
화를 치고
저주 받은 폭군처럼 저항없는
사람들을 배어 버린다

『U.R.어.크.레.이.지.맨』

안개의 살갓으로 터져 나오는
빈소리들이 눕는다
중력을 잃어 버린 태양이
안개에 부딪혀 터져 버리고

이미 안개의 갈목은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었는데.

地下道를 나오며

어둠에 묻어온 時間이
완행열차 앞에 머리카락 처럼
형클어 진다
긴 하품에 지친 기억들이
지하도 구석에 기대 선다
사람들은 등을 보인채 생명없는
계단위로 넘어져 사라져 가고
잠든 수은등에 쓰러져 가는 광장역
사람들은
목소리에 포장된 서로의 노래를
삼키지 못하고
서 있었다. 旅行의 옷을 입은채
다시는 눈을 뜨기 싫었다
거리를 줍던 사람들에게
내가 구걸하던 거리의 병동으로
던져지고, 그들은
거울속에 살던 낮익은 기억이 되어
손짓하며 다가와 속삭인다
아마 세상에 반쯤은
잠을 자고 있을 거라고.

슬픔은 달맞이 꽃잎에 고인다

별 속에 헤매이던
슬픔으로 살린다
별부스러기로
흩어질
우리 엄마
시집살이.
슬프다 하지말자
달맞이 꽃잎에
대롱이던
애증으로 살린다.
달빛을
퍼올리던
그대의 더부살이
하늘에 털며.
밤새
슬픈 웃음까지
즐거워 하던
달맞이 꽃잎에
잠이 든다.
슬픔은
달맞이 꽃잎에
고이나 보다.

검정 고무신

- 예언된 1991년 여름 -

은 마을은
젊어 늙은 사람들이
하얀옷을 입고
떨어진 문패를 찾아 나선다
거룩한 노예의
한 세월 께인
그림자도 일렁이고
갈무리 추억에 물든
아버지의 얼굴에도
깊은 수렁이 패여,
골골이 흐르는
옥수수밭 골짜기에도
네놈은 엎드려져
일어서질 않았다.

너른 논밭에
살아 넘어지는 빗소리
긴 밤 수몰된 슬별들의
풀어 헤친 가슴이
앙상한 호흡으로 매달린다
식어버린 동맥에도
죽어버린 옷깃에도

산 새에 갇힌
바람이 불어온다
바람이 불어온다

등실 등실
검정 고무신 한짝
나보다는 아들놈의
여린 발을 기억 한다
새까만 세월을
분노하며 뛰쳐 나왔을
기차표 고무신엔
평화의 냄새가 난다
20년은 잠들었을

내 궤양처럼 터져 흘렀다.
검정 고무신이
어둠에 부서진다
평화처럼 응크린다.

산산이 피를 토한
꿀짜기여
산머리여
조국이여
사람은 도시로
도시는 산으로
부름없는 메아리
깃털없이 땀돈다.

하느님이 노하셨나
뒷동산이 폭포되고
도로가 강이되고
마을이 바다되고
바다가 마을되고
수남이 친구도
아버지 친구도
볼 수 없었다

하늘이 무너졌구료!
절룩이는
검정고무신 벗어권채
이 땅은
누빈 세월을 걸쳐입고
등실 등실 바다로 간다
찢긴 고무신타고
퍼런 하늘
누렇게 얼룩진
논바닥위로,
폐허의 흔적도
문혀버린 이 여름
눈물없는 소쩍새의
갈곳 없음이여.

(골프 공화국의 신도시 용인에서)

누이에게

저잣거리 철렁이는
세월에
무더진 기억이
맨홀 속에 허우적이다
사그러졌다. 침전에 반항하는
용병들의 구린 합성이
여공들 빨랫줄 사이로
속살을 핥고,
부끄럼에 매달린 적막이
별만큼 작은
누이의 목소리에
잠이든다.

어둠에 채여
고꾸라진 사람들.
어둠없이는 죽음조차
정당화 되지 못한다
세월이 할퀴
어미의 거친 손에 떠밀린
누이는
거대한 공장 굴뚝의 검은 연기로
새벽 안개 속에 가라 앉는다

무너진 담벼락 너머
총총한 발소리에
어둠이 부서지기 시작하고
누이는 어둠을 흐느낀다
어둠을 벗는
누이의 젓가슴

승승뛰린 퍼런가슴으로
“빌어먹을 세상”
환상으로 살았던 죄일까
환상으로 버림받은 울분일까
아이야!
누이를 깨워 별을
바라보자. 긴밤
정겨운 입맞춤에
별이 떨어진다.
텅빈 도시의 꽃으로

새 는

깃털도 없는 새의 날개를
꺾었던 사람들
그리고 너희들은 울었다. 죽은 것은
벌건 새의 부리였네
하늘조차 모르던 새는 새이기 때문에 본능이
꺾이고
생명에 실려 퍼득였네
(화려한 음악과 도시의 색깔들은 간헐 새의 깃
털 만큼이나 보드랍지 못했다.)
불능의 세월을
묻어둔 채 돌아선 나그네
땅으로 땅으로 묶어버린
발목의 아픔을
잊으려는 세월의 신음을
그리운 체념으로 묻어 두려나

가을 진혼곡

황혼이 검게 타들어가는
저문 그림자도
낙엽에 물들어 떨어진 다
명들지도 피흘리지도 않는
가을 하늘은
어스름한 노래에
취해 쓰러진다
맑은 피 다 쏟아
뺏뺏이 굳어 서있는
황금 들녘으로.

버림받은 세상을 마셔대던
노인의 술잔에서
하늘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어깨동무 하며 춤을 춘다
어둠속으로 쫓겨가는
아이들의 노래소리는
참새떼의 먹이가 되어
들녘,
허수아비의 노래는
웃음인지
슬픈 자유인지!

가을녘

하늘끝에 피다 떨어진
노을녘 가장자린
붉은 가을이 타고 있었습니다
목메어 떨어진 나락들이
바람을 흔들어 깨우고
우린 일어섰습니다
기다림에 맴돌던 솔개마냥
뺨 속으로 웅크린 노래마저 말입니다
화염싸인 논두렁은
위태로운 시선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천륜을 믿어온 인생은
이제 옷깃을 여며야겠다고.
서걱서걱한 발걸음에
소리내지 않는 푸름을
청솔모 한마리 바람타고 잡니다
우린 아무 말없이 걸었습니다
세월의 문틈에 찢긴
옷자락에 묻어온 그리운 얼굴마저
세월의 능선 위를 걸었습니다
돌아누운 이 계절까지 말입니다.

서정3세대 동인시집 제2집
金良川에 솟는 달

지은이/박상돈 외 6인
펴낸이/박용익
펴낸곳/용인문화원

주소/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우편번호/449-800
전화/35-2033

찍은곳/인현인쇄소
주소/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전화/33-3700

찍은날/1992. 12
펴낸날/1992. 12

파손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비매품)

서정3세대 시동인

임준규/이종대/옥빈/박상돈/박경화/노영미/김종경

아직도 서툰 목소리가
부끄럽기만 합니다.
열정으로 가득찬 가슴
향토문학 싹틔움에 조금이나마
밑거름이 되고자 갈망했던
순수한 바램의 시도였다고
우리의 부끄러움 애써 변명하여 봅니다.



용인군립도서관



EM32254